

92.12.18

# “상대에 대한 요구조건 너무 높아요”

“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상대방의 내면은 못 읽고 그저 외모만 따지거나 가시적인 조건에 얽매어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진짜 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”

여성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남녀의 건전한 만남을 주선한지 1주년을 맞은 <대한어머니회 전문결혼상담실> 염명자(49) 실장이 밝히는 결혼상담의 어려움이다. 지난 1년간 이곳을 찾은 젊은 남녀는 4백명이었으나 성혼율은 5%가 채 안된다.

염 실장은 “젊은 남녀의 결혼관이 요즘 들어 상당히 변화하고 있지만 남녀 모두 자기조건과 관계없이 상대에 대한 희망, 요구사항이 너무 높은 것”이 성혼율이 낮은 이유라고 한다. 여성들은 키는 양보할 수 있지만 학벌은 꼭 일류대아니면 안된다는 요구사항을 주로 내세우고 남자들은 학벌은 좀 떨어져도 바꿀 수 있지만 외모는 예뻐야 한다는 식이란다.

“뚜렷한 변화중에 여성 남성 모두 시부모, 장인장모 부양 또는 장남 등 상대의 가족서열 여부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또 해외결혼에 대한 선호도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요.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.”



염 실장에 따르면 부모나 젊은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관·검사 등 일명 ‘사’자 붙은 신랑감보다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체의 연구원 등 전문직종사자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. 그러나 학벌과 성공한 직업이나 집안이며, 미모 등 외적조건을 중시하는 경향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 같다고 개탄해 했다.

“근래 들어 크게 급증하는 신혼초 이혼의 한 이유가 보상심리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적 조건에만 치중한 결과에서 비롯되는 것이죠. 결혼은 현실이고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이란 서로 평등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성격의 조화를 이루며 상호보완

할 때 가능한데도 가장 중요한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해요.”

이런 실정에서 대한어머니회 전문결혼상담소에서는 외적조건 중시 등 전통적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도록 상담을 유도하는 것이 공익기관의 역할이라고 보고 건전한 만남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다. 지난 5일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서 1주년 기념행사로 김태길 박사를 초청해 연 공개강좌 ‘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배우자 선택’ 세미나도 이런 노력의 일환.

염 실장은 “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서 보여지는 경향은 30대 이상의 고학력 전문직여성들의 결혼이 어려워진다는 것이

죠. 과도기적 현상이겠지만 대체로 나이가 많은 남자일수록 여자보다 학력이 떨어지고 원하는 연령층은 5~10살 이하의 여자를 원하는 등 요구조건들이 고정관념에 집착돼 맞춰 주기가 어렵다”며 이는 ‘남자는 여자보다 연령으로나 학력에서 뒤쳐져서는 안된다’고 생각하고 ‘남자는 여자보다 조건이 좋아야 한다’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진단한다.

“결과적으로 일부 남성층과 여성층 모두 결혼하기 힘들어진다는 사실이죠. 또 전체적으로도 외적 조건만의 중시가 백년해로를 막는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이상이 아닌 현실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상담을 유도하면서 고정관념의 벽을 허무는데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.” 결혼당사자가 직접 내뱉어야 하고 최종학교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결혼상담신청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‘공신력’에서는 인정받고 있다는 염 실장은 공신력 있는 전문결혼상담소가 빠른 시일내 많이 생겨야 한다고 역설한다.

한편 이곳 결혼상담회원 남녀 4백명을 대상으로 조사 집계한 젊은 남녀의 인적사항과 결혼관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이 83.7%, 남자는 67.5%로 여성의 학력이 월등히 높았고 여성 중 “장남은 싫다”고 응답한 경우가 23%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해외결혼 여부에서는 남녀 각각 66%, 68.9%가 유학생 등 해외거주자와의 결혼에는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.(속